

로쿠지조 광장

광장 한쪽에 있는 작은 묘지 입구에 6 개의 지장보살상이 서 있으며, 우치야마 지구의 중심부에서 강을 건넌 곳에 있습니다. 로쿠지조(여섯 지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조각상들은 윤회전생(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의 반복)의 육도(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를 통해 사람들을 이끌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장보살은 어린이, 그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수호자라고도 합니다. 조각상에는 종종 빨간 앞치마가 걸려 있습니다. 이는 빨간색이 안전, 그리고 액막이를 나타내는 색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로쿠지조 석상은 일본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리타 지역에서는 이와야가와치 지구, 히에코바 지구의 호온지 절 정면, 오다루 지구의 산코안 광장 등 아리타초 내에는 그 밖에도 로쿠지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는 과거 자기의 원료인 돌을 부수는 데 사용되었던 디딜방아라는 수력으로 움직이는 해머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이 기계 장치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지만, 1984 년에 텐구다니 가마 터 근처에 복제품이 2 개 만들어졌습니다.